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습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문자 이외에 그림, 사진 등의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을 접하곤 한다. 시각 자료가 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견해에 따르면, 시각 자료는 문자 외에 또 다른 학습 단서가 된다. 문자로만 구성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머릿속으로 문자가 제공하는 정보, 즉 ‘문자 정보’만을 처리하지만,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을 읽을 때는 ‘이미지 정보’도 함께 처리한다. 이 두 정보들은 서로 참조되면서 연결되어 독자가 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상호 보완적으로 기여한다. 독자가 문자 정보를 떠올리지 못할 때 이미지 정보가 단서가 되어 글 내용을 기억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시각 자료는 글 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가에 따라 예시적, 설명적, 보충적 시각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예시적 시각 자료는 글 내용을 시각화하여 보여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설명적 시각 자료는 글 내용을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목적에 더하여 글에서 다룬 내용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보충적 시각 자료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글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보충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이에 따라 보충적 시각 자료는 글 내용의 범위를 확장하는 특징이 있다. 이 외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글 내용과 관련 없이 여백을 메우는 목적으로 장식적 시각 자료가 쓰이기도 한다.

㉠글 내용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포함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글의 내용과 시각 자료의 관계를 살피고 시각 자료로 강조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시각 자료가 설명 대상이나 개념을 적절하게 표현하는지, 글에서 효과적으로 쓰이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독자는 글 내용과 이에 적합한 시각 자료를 종합하여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 독자는 매력적인 시각 자료에 사로잡혀 읽기의 목적을 잃지 않고, 낯설고 복잡한 시각 자료도 읽어 내는 능동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시각 자료는 여백을 채우는 목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 ② 글에서 중요한 정보를 시각 자료를 통해 부각할 수 있다.
- ③ 독자가 시각 자료에 끌리다 보면 글을 읽는 목적을 잃을 수 있다.
- ④ 시각 자료의 용도는 머릿속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 ⑤ 독자는 낯선 시각 자료도 읽어 내는 능동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의미는 글 내용과 시각 자료를 종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② 문자 정보와 이미지 정보는 상호 참조되어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③ 문자로만 구성된 글보다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웠다면 이미지 정보가 단서가 되었을 수 있다.
- ④ 글에서 설명하는 개념과 시각 자료의 관련성을 따지고 시각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 ⑤ 문자 정보 처리와 이미지 정보 처리를 통해 연결된 정보를 독자가 떠올려야 글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3. <보기>는 학생이 쓴 독서 일지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이집트의 기록 문화’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다. 제목 옆에 비행기 그림이 있었다. 글은 “파피루스 줄기를 잘라, 줄기를 가로세로로 겹치고 서로 붙여 종이를 만들었다.”라는 내용만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글 속에 있는 그림을 보니, 그림 1에서 파피루스 줄기를 같은 길이로 길고 얇게 자른다는 것을, 그림 2에서 그것들을 가로세로로 겹치고 서로 붙여 종이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은 이집트 상형 문자가 벽에 새겨진 모습을 담고 있었다.

- ① 비행기 그림은 글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예시적 시각 자료이다.
- ② 그림 1은 글 내용을 시각화해 보여 주면서 글 내용도 보완해 주는 설명적 시각 자료이다.
- ③ 그림 2는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보여 주는 보충적 시각 자료이다.
- ④ 그림 3은 글 내용에 있는 설명 대상을 표현하여 글의 주제와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그림 2와 3은 글에서 다룬 내용을 보완하여 글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 조건을 ㉡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다.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이 포함된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추천·보증과 이용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은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으로서, 해당 상품·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추천·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는다.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그 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추천·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위의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는 광고로 적극 활용한다. 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의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이때 이용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게시자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달리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 ②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유통 조직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
- ③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 ④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천·보증은 심사 지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의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기준 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5.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시장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작은 경우에 허용된다.
- ② ㉠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목적은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③ ㉢을 할 때 사업자는 영업의 자유를 보호받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지 못한다.
- ④ ㉢은 사업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은 소비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일어나는 행위이다.

6.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 상품 제조 사업자인 갑은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특정 판매 가격을 지정해 거래했다.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 상품에 대한 이용후기가 다수 게시되었다. 갑은 그중 A 상품의 품질 불량을 문제 삼은 이용후기 200개를 삭제하고, 박○○ 교수팀이 A 상품을 추천·보증한 광고를 게시했다. 광고 대행사 직원 을은 A 상품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후기를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소비자 병은 A 상품을 사용하며 발견한 하자를 찍은 사진과 품질이 불량하다는 글을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갑은 병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

- ① 갑이 A 상품의 품질 불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는 대신 비공개 처리하는 것도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겠군.
- ② 갑이 박○○ 교수팀이 A 상품을 실험·검증하고 우수성을 추천·보증했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실험이 진행된 적이 없다면 갑은 부당한 광고 행위로 제재를 받겠군.
- ③ 갑이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 가격을 지정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부과한 조건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그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었다면 갑은 제재를 받지 않겠군.
- ④ 을이 갑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 상품의 장점을 알리는 이용후기를 게시했다면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겠군.
- ⑤ 병이 A 상품을 직접 사용해 보고 그 상품의 결점을 제시하면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이용후기를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겠군.

7.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내 의견에 본인의 견해를 붙여 발언을 이어 갔다.
- ② 나는 수영에 재미를 붙여 수영장에 다니기로 결정했다.
- ③ 그는 따뜻한 바닥에 등을 붙여 잠깐 동안 잠을 청했다.
- ④ 나는 알림판에 게시물을 붙여 동아리 행사를 홍보했다.
- ⑤ 그는 솥에 불을 붙여 고기를 배부를 만큼 구워 먹었다.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다.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블록체인이라 하고,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다. 새로 생성된 블록은 노드들에 전파된다. 노드들은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증한다. 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 승인이 완료된 블록은 블록체인에 연결되고, 이 블록체인은 노드들에 저장된다.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증명’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블록체인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되며,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계산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형과 비공개형으로 구분된다. 비공개형은 공개형과 달리 노드 수에 제한을 두고, 일반적으로 공개형에 비해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비공개형은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능이 높다.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 하는데 무결성은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특정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데이터가 변경되면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은 블록체인과의 연결이 끊어진다. 끊어진 모든 블록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결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다. 즉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블록체인 데이터는 무결성이 높다. 무단 변경과 달리, 일부 데이터가 지워져도 승인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할 때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다.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이 있다. 보안성은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서로 다른 블록에 또는 단일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는 성질이다.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안성은 낮아진다. 탈중앙성은 승인 과정에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하고, 특정 노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성질이다.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은 낮아진다. 확장성은 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할 만큼 성능이 높고,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는 성질이다.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되므로, 확장성이 높다는 것은 노드 수가 증가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하고자 할 때 노드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노드 수를 제한하면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규모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8.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에게 제공된 학습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판단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아래를 읽고 맞으면 ○, 틀리면 × 표시를 하시오.

판단할 내용	판단 결과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	①
블록체인의 구조를 분석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	②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열거하고, 다른 기술과의 경쟁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③
⋮	⋮	
합의 알고리즘은 작업증명의 한 예이다.	○	④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다.	○	⑤

9.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 ② 일부 블록체인 데이터가 변경되면 전체 노드의 모든 블록은 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 ③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면 보안성이 높다.
- ④ 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은 같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성능이 낮아진다.
- ⑤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블록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다른 데이터와 비교되어야 한다.

10.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변경이 쉽기 때문이다.
- ② 블록체인이 여러 노드들에 중복 저장되기 때문이다.
- ③ 승인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 ④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⑤ 동일한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연결된 서로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노드 수가 10개로 고정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A 업체는 이전에 사용하던 작업증명 대신 속도가 더 빠른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해, 유통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초과 달성했다. 한편 B 업체는 최근 A 업체보다 데이터의 위조 불가능성을 향상시킨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노드 수에 제한이 없지만 현재는 200개의 노드가 참여하고 있다. 승인 과정에는 작업증명을 사용한다.

- ①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이전보다 확장성과 보안성이 모두 높아졌겠군.
- ②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보안성과 확장성이 모두 높아지겠군.
- ③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감소하면 성능은 높아지고 탈중앙성이 낮아지겠군.
- ④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 업체와 달리 공개형이고, B 업체보다 탈중앙성이 낮겠군.
- ⑤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 업체와 승인 과정이 다르고, B 업체보다 무결성이 높겠군.

-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리얼리즘 영화 이론가 앙드레 바쟁에 따르면 영화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다. 창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것처럼, 관객은 영화를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영화가 담아내고자 하는 현실은 물리적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는 하나의 총체로, 그 의미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미결정의 상태이다. 바쟁은 영화가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과 미결정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쟁은 영화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분류했다. 영화의 형식을 중시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 ㉠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주력한다. 몽타주의 대가인 에이젠슈타인이 대표적이다. 몽타주는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이게 한다. 또한 짧은 숏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해서 영화가 재현한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만들어 낸다. 바쟁은 몽타주가 현실의 연속성을 ㉡ 깨뜨릴 뿐만 아니라 감독의 의도에 따라 관객이 현실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연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바쟁은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다. 이들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달리 영화의 내용, 즉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자 한다. 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는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화적 기법이다. 디프 포커스는 근경에서 원경까지 숏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 촬영하는 기법으로,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다. 롱 테이크는 하나의 샷이 1~2분 이상 끊임 없이 길게 진행되도록 촬영하는 기법이다. 영화 속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객의 영화 체험 시간이 일치하여 현실을 ㉠ 마주하는 듯한 효과를 낳는다. 바쟁에 따르면, 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를 혼용하여 연출한 장면은 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응시하면서 화면 속 공간 전체와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게 해 준다.

바쟁은 현실의 공간에서 자연광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배우로 ㉡ 쓰는 등 다큐멘터리처럼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 내는 연출 방식에 찬사를 보냈다. 또한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영화 보다는 열린 결말을 통해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를 선호했다. 이러한 영화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것이며 환영이다. 영화와 관객의 심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와 관객 사이에 발생하는 동일시 현상에 주목한다. 이런 동일시 현상은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한다. 이때 영화 장치는 카메라, 영화의 서사, 영화관의 환경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가장 대표적인 동일시 현상은 관객이 영화의 등장인물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런 동일시는 극영화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발생한다. 그런데 관객이 보고 있는 인물과 사물은 영화가 상영되는 그 시간과 장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인물과 사물의 부재를 채우는 역할은 관객의 몫이다. 관객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 영화가 보여 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허구적 세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 없앤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 영화는 일종의 몽상이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된다. 관객은 카메라에 의해 기록된 것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객은 자신이 영화를 보는 시선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선은 카메라에 의해 이미 규정된 시선이다. 또한 영화는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에 따라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지지만, 관객은 제작 과정에서 무엇이 배제되었는지 알 수 없다. 관객은 자신이 현실 세계를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가들의 주장이다.

영화관의 환경은 관객이 영화가 환영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영화에 몰입한 관객은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 속 죄수처럼 스크린에 비친 허구적 세계를 현실이라고 착각한다. 이때 영화는 꿈에 빗대진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특정한 이념을 관객이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관객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담겨 있는 대안적인 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12. (가)와 (나)에서 모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화는 무엇에 비유될 수 있는가?
- ② 영화의 내용과 형식 중 무엇이 중요한가?
- ③ 영화에 관객의 심리는 어떻게 반영되는가?
- ④ 영화 이론의 시기별 변천 양상은 어떠한가?
- ⑤ 영화관 환경은 관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13. (가)를 바탕으로 할 때, 영화적 기법의 효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몽타주를 활용하여 대립 관계의 두 세력이 충돌하는 상황을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한 장면에서, 관객은 생소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② 몽타주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공간을 짧은 샷으로 불규칙하게 교차시킨 장면에서, 관객은 영화 속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 ③ 디프 포커스를 활용하여 주인공과 주인공 뒤로 펼쳐진 배경을 하나의 샷으로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배경이 흐릿하게 인물은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④ 롱 테이크를 활용하여 사자가 사슴을 사냥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의 샷으로 길게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실제 상황을 마주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⑤ 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를 활용하여 광장의 군중을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자율적으로 인물이나 배경에 시선을 옮기며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다.

14. <보기>의 입장에서 (가)의 ‘바쟁’에 대해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관객은 특별한 예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감독의 의도대로 작품을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감독은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려 할 필요가 없다. 관객은 작품과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생산하는 능동적 존재이다. 감독과 관객은 수평적인 위치에 있다.

- ① 바쟁은 열린 결말의 영화를 관객이 이해하도록 돕는 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 ② 바쟁은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의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는 것을 영화의 목적이라고 오인하고 있다.
- ③ 바쟁이 감독의 연출 역량을 기준으로 감독의 유형을 나눈 것은 영화와 관객의 상호 작용을 무시한 구분에 불과하다.
- ④ 바쟁이 변형된 현실을 통해 생성한 의미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관객의 능동적인 작품 해석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 ⑤ 바쟁은 감독의 연출 방식에 따라 영화 작품에 대한 관객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감독이 관객보다 우위에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15.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객은 영화 장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② 현실의 의미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 ③ 영화가 현실을 불연속적으로 파편화하여 드러내기 때문이다.
- ④ 관객은 영화의 은폐된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⑤ 관객은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 배제된 것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영화 감상문이다. 이에 대해 (가)의 바깥(A)의 관점과 (나)의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B)의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최근 영화관에서 본 두 편의 영화가 기억에 남는다. ㉠ 첫째 번 영화는 고단하게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일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다큐멘터리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사실적인 영화였다. 작품에 대해 더 찾아보니 거리에서 인공조명 없이 촬영되었고, 주인공은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었다고 한다. 마지막에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아 줄 때, 마치 내 손을 잡아 주는 것처럼 느껴져 감동적이었다. 열린 결말이라서 주인공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했다.

㉡ 둘째 번 영화는 초인적 주인공이 외계의 침략자를 물리치는 내용이다. 영화 후반부까지 사건 전개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와 실재라고 착각할 정도로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 화면은 으름이었지만 뻔한 결말은 아쉬웠다. 그래도 주인공이 침략자를 무찌르는 장면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구하는 것 같아서 쾌감이 느껴졌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생각해 보니 왜 세계의 평화는 서구인이 지키고, 특정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인류의 위기인지 의아했다.

- ①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에서 궁금함을 떠올린 것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열린 결말을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에 담았기 때문이다.
- ②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에서 사건의 전개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에는 의미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 ③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과 ㉡에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받은 것은 ㉠과 ㉡가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 내는 연출 방식으로 촬영되었기 때문이다.
- ④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에서 의아함을 떠올린 것은 ㉡가 관객으로 하여금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영화이기 때문이다.
- ⑤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에서 감동을 받은 것과 ㉡에서 쾌감을 느낀 것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 허구적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켰기 때문이다.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개선(改善)된                      ② ㉡: 파괴(破壞)할
- ③ ㉢: 대면(對面)하는                  ④ ㉣: 기용(起用)하는
- ⑤ ㉤: 해소(解消)한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제1회 봄놀이

오작교에선 선랑(仙郎)이 봄바람에 취하고  
버드나무 언덕에선佳人(佳人)이 그네를 뛰네

‘광한루기’는 작품 전체의 제목이다. 광한루가 없었더라면 [A] 이도린이 놀러 가지 않았을 것이요, 이도린이 놀러 가지 않았더라면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요, 춘향이 이도린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이 무엇을 바탕으로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광한루 하나가 공중에 솟구쳐 있었기에 이도린이 놀러 갈 수밖에 없었고,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밖에 없었으며,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중략)

그네 뛰는 모습을 이도린이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앞이 어질어질하여 김한에게 말했다.

“너는 저런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저것이 금이나, 옥이나? 아니면 귀신이나? 그것도 아니면 선녀냐? 너는 저것을 아느냐?” 김한이 대답했다.

“금도 아니고 옥도 아닙니다. 낙수(洛水)에 빠져 죽은 이의 넋도 사라지고, 양대(陽臺)에서 구름과 비를 만들었던 여인의 일도 이제 아득하기만 한데, 어떻게 귀신 같고 선녀 같은 아가씨가 요즘 세상에 나타났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란 말이나?”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누구냐?”

“도련님께서는 교방 행수 기생 월매를 기억하시는지요?”(이게 무슨 말이야?)

“저렇게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어떻게 반쯤은 주글주글해진 노파에다 비교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월매의 딸 춘향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며 글도 잘하고 바느질도 잘하며 그 용모와 자태는 정말 절색입니다. 남원의 절색일 뿐 아니라 도내의 절색이요, 도내의 절색일 뿐 아니라 국내의 절색이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도린이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풍류를 즐길 만한 인연이 정말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네가 가서 불러 오거라.”

“도련님께서 저 아이를 불러다가 무엇을 하시려고요?”

“고운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런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도련님께서 저 아이를 보시고 무엇 하시려고요?”(눈치 빠른 김한)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네가 알아서 뭇 하느냐?”

“부른다 해도 저 아이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고 안 오고는 저 아이한테 달렸지 너한테 달리지 않았으니, 너는 그 새 주둥이 같은 입을 그만 닥치거라.”

이에 김한이 머리를 떨구고 갔다.

원래 춘향은 풍경을 즐기려는 옆집 여자 아이를 따라 나온 것이었다. 채색 줄로 만든 그네를 탔는데, 봄바람에 옷자락이 흐트러져 버드나무 가지를 꼭 잡은 채 그네를 멈추고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광한루 위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자(이게 누구지?) 춘향은 몸을 돌려 [꽃그늘] 속으로 들어가

숨고서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도린이 꽃무늬가 있는 작은 종이를 손에 쥐고 홀로 광한루 동쪽 난간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티 없이 맑아 춘향은 은연중에 찬탄하는 말을 내뱉었다. 갑자기 김한이 바쁜 걸음으로 와서 불렀다.

“춘향 낭자 어디 있소?”

춘향이 다시 몸을 돌려 숨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김한이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꽃그늘에까지 와서 춘향을 발견했다.

(중략)

김한이 웃으며 말했다.

“춘향은 노여워 말고 내 말 한번 들어 보오. 어제 남문 밖 큰 길에서 까치 같은 옷차림의 사령들이 쌍쌍이 앞에서 인도하고, 호랑이 무늬의 활집을 진 군관들이 대열을 이루며 뒤에서 호위한 채, 한 귀인이 구름 같은 가마에 앉아 아전들과 기생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는데, 낭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오?”

“내가 또 쓸데없는 말을 하는구나. 내가 어찌 본관 사또를 몰라보겠느냐?”

“내가 말한 귀인은 바로 사또 자제 도련님이오.”(기특한 김한)

“사또 자제 도련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나?”

“낭자, 우리 도련님을 한번 만나러 갑시다.”

“도련님이 어떻게 춘향인지 추향인지 알겠느냐? 내가 춘향 입네, 기생입네 하면서 농지거리해서 일을 벌였겠지. 나는 죽어도 못 간다, 죽어도 못 가.”

“춘향 낭자, 그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이다지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오? 속담에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했듯이 도련님께서 춘향이 발한 것이 우연히 오늘이며, 낭자가 그대 뛰며 논 것도 마침 이때이니, 이는 참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된 것이오. 도련님께서 낭자를 보시고는 ‘귀신이나? 선녀냐?’라고 물으시기에, ‘귀신도 아니고 선녀도 아닙니다.’라고 말했고, ‘그럼 누구냐?’라고 하시기에, ‘행수 기생의 딸입니다.’라고 말했소. 젊은 사내가 어찌 한 번쯤 그 아름다움을 살피려 하지 않겠소? 춘향 낭자는 잘 헤아려서 처신하시오.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고, 못 가겠다면 못 가는 것이지만, 화와 복이 눈앞에 놓여 있으니 낭자는 잘 생각하시오.”

춘향이 한참 동안 잠자코 있다가 말했다.

“네 말이 일리가 있다.”

- 수산, 『광한루기』 -

18.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도린은 춘향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 ② 춘향은 그네를 타기 위해 나들이에 나섰지만 기대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했다.
- ③ 이도린은 춘향을 부르면 이도린 자신을 만나러 올 것이라는 김한의 말을 믿었다.
- ④ 이도린은 월매가 춘향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모르는 척했다.
- ⑤ 옆집 여자 아이는 이도린을 만나기 위해 춘향과 함께 왔지만 풍경을 즐기는 것에 만족했다.

19. 꽃그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춘향이 그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장소
- ② 춘향이 김한을 기다리며 머물고 있는 장소
- ③ 춘향이 몸을 감추고 이도린을 바라보는 장소
- ④ 김한이 이도린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소
- ⑤ 이도린이 춘향과 만나기 위해 미리 약속한 장소

20. 윗글에서 ‘김한’의 역할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도린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이 금과 옥이 아니라고 알려 주어, 이도린의 무지를 일깨우는 비판자 역할을 한다.
- ② 이도린에게 춘향이 선녀 같은 아가씨라고 말하여, 이도린이 춘향의 고귀한 신분을 알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 ③ 이도린에게 풍류를 즐길 만한 상대가 춘향이라고 이야기하여, 이도린이 춘향을 부르게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
- ④ 춘향에게 춘향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일깨워 주어, 춘향이 이도린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자 역할을 한다.
- ⑤ 춘향에게 이도린과의 만남은 거둬진 우연으로 이루어진 인연임을 알려 주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A],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광한루기』는 ‘수산(水山)’이라는 호를 쓴 사람이 『춘향전』을 바탕으로 지은 한문 소설로, 총 8회로 이루어져 있다. 각 회의 앞부분에는 내용을 소개하는 시구와 해당 회에 대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고, 본문 속에는 인물이나 사건 등에 대한 짤막한 평이나 감상이 작은 글씨로 제시되어 있다. 『광한루기』의 독자는 이와 같은 다양한 비평적 견해를 이야기와 함께 읽으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① [A]에서는 시구를 활용하여, ‘봄바람’과 ‘버드나무 언덕’이 어우러진 봄날의 분위기를 보여 주면서 해당 회의 배경을 드러내고 있군.
- ② [A]를 통해 해당 회의 주요 공간인 ‘광한루’를 소개하여, 그 공간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군.
- ③ [A]에서는 두 인물이 만나게 되는 계기를 서술하여, 서사 전개에 개연성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은 인물의 말에 대한 평을 통하여, 독자에게 이도린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여 주고 있군.
- ⑤ [A]와 ㉠을 통해 독자에게 작품의 감상법을 다양하게 설명하여, 『광한루기』를 8회로 구성한 이유를 부각하고 있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홍안령을 음산을 아무우르를 송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의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의 불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

㉢ 오로촌이 멧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던 것도

썰론이 십릿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때

㉣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그리하여 따사한 햇귀에서 하이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 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  
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만  
혼자 뉘 없이 떠도는데

㉥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량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 백석, 「북방에서-정현웅에게」—

(나)

겨울 아침 언 길을 걸어

물가에 이르렀다

나와 물고기 사이

창이 하나 생겼다

물고기네 지붕을 튼 ㉠ 살얼음의 창

투명한 창 아래

물고기네 방이 한눈에 뵈었다

나의 생가 같았다

창으로 나를 보고

생가의 식구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졌다

젖을 갓 땀 어린것들은

찬 마루서 그냥저냥 그네끼리 놓고

어미들은

물속 쌓인 돌과 돌 그 틈새로

그걸 깊은 데라고

그걸 가장 깊은 속이라고 때로 들어가

나를 못 알아보고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

그 비좁은 구석방에 뻘뻘히 서서

마음아, 너도 아직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의 눈을 달고

— 문태준, 「살얼음 아래 같은 데 2 — 생가(生家)」—

(다)

이문원 동쪽 늪은 나무가 있는데 적어도 백여 년은 된 것 같다. 그 몸통은 울퉁불퉁 웅이가 쪼고 가지는 구불구불 뻗어서 멀찍이서 보면 가파른 산등성이나 성난 파도 같았고 다가가서 보면 둥그스름한 큰 집채 같았다. ㉠ 기둥으로 나무를 받쳐 놓았는데 그 기둥이 모두 열두 개이다. 나무 옆에 누각이 있는데 바로 내가 이불을 들고 가서 숙직하는 장소이다. 좌우에 책을 쌓아 놓고 교정하느라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따금 나무 곁을 산책하였다. 썩썩 불어오는 긴 바람 소리를 들으며 **널찍이 드리운 서늘한 그늘** 아래를 거닐면 몸은 대궐 안 관청에 있어도 숲속의 소나무와 바위 사이로 **홀썩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다.

하루는 내가 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나무는 정말 특이하군! 대체로 **풀과 나무**가 살아가려면 제각기 **몸을 보전하는 계획**이 있기 마련일세. 풀명자나 배, 굴이나 유자, 사과나 석류 같은 나무들은 열매가 커도 가지가 그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네. 하지만 질경이나 냉이, 강아지풀 같은 풀들은 살아가려면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하네. 그래야 말발굽이 짓밟거나 수레가 밟고 지나가도 더 손상을 입지 않지. 지금 저 늪은 나무는 줄기의 길이가 몸통 보다 갑절로 뻗어 사방에 드리워도 잘라 낼 줄 모르네. 만약 받쳐 주는 기둥이 없으면 부러지고야 말 걸세. **조물주가** 이 나무에게는 사람의 손을 빌려 온전하도록 한 것인가?”

아! 내가 **암소**의 뿔을 보니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했는데 심한 것은 사람이 반드시 **툼으로 잘라** 내야만 광대뼈를 뚫는 걱정을 모면하였다. 이제야 알겠구나. 늪은 나무를 가축에 견주자면 뿔을 잘라 내야 온전해질 수 있는 암소와 같다.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듯이 늪은 나무도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간다.

나는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에 이렇듯이 번성하게 자란 늪은 나무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 유본예, 「이문원노종기(摛文院老樞記)」—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판적 태도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역사적 상황을 묘사하여 비극적 현실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로 대상에 대한 ‘나’의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나’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23. **태반**과 **생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태반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생가에서 서글픔을 느끼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태반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생가에서 느꼈던 수치심을 떠올리고 있다.
- ③ (가)에서 태반은 이별을 수용하는 공간이고, (나)에서 생가는 만남을 기약하는 공간이다.
- ④ (가)에서 태반은 화자의 희망이 드러나는 공간이고, (나)에서 생가는 화자의 절망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⑤ (가)에서 태반은 생명의 섭리를 지향하는 공간이고, (나)에서 생가는 생명의 섭리를 거부하는 공간이다.

24.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여러 민족, 나라, 지명을 열거하여, 화자가 떠나온 공간을 북방으로 포괄되는 동질적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제시하여, 화자가 북방을 떠나면서 느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에서는 이별하던 장면을 유사한 통사 구조로 제시하여, 화자가 북방에서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의 시구가 ㉤에서 반복, 변주되는 것을 통해,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에서 ‘없다’와 그 앞에 열거된 시어들을 통해, 화자가 가깝게 느끼고 가치를 부여했던 것들이 부재함을 표현하고 있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시에서 성년이 된 화자는 얼음 아래의 물고기를 보면서 유년 시절 자신의 생가를 회상한다. 화자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물고기네’의 여기저기를 본다. 그리고 ‘물고기네’의 모습에 화자의 생가에 대한 기억이 겹쳐진다. 화자는 자신을 물고기에 투영하면서, 성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생가에서의 ‘시린’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 ① ‘투명한 창’을 통해 본 물고기의 생활 공간을 ‘물고기네 방’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화자는 얼음 아래 물고기의 공간과 자신의 생가를 겹쳐 보고 있군.
- ② ‘창으로 나를 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지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화자는 ‘생가의 식구들’이 자신을 못 알아본 것으로 표현하였군.
- ③ ‘젖을 갓 땀 어린것들이 ‘그네끼리 놀고’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화자는 물고기들이 노는 모습을 통해 유년 시절 생가에서 지내던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군.
- ④ 화자는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궁리를 하’는 물고기의 모습에 유년 시절 생가에서 외따로 지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군.
- ⑤ 화자는 ‘마음아, 너도 아직’ 생가에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여, 성년인 자신의 마음속에 유년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26.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불안을 심화하는, ㉡는 글쓴이의 의지를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한다.
- ② ㉠은 화자의 이상향을 형상화하는, ㉡는 글쓴이의 태도를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은 ㉡와 달리, 화자에게 책임감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된다.
- ④ ㉡는 ㉠과 달리, 글쓴이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⑤ ㉠과 ㉡는 모두 대상을 새롭게 주목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27. <보기>의 [A]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여러분, 『이문원노종기』는 이문원의 늙은 나무가 인간의 도움을 받아 오랫동안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점에 착안한 글입니다.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각각 이익을 주거나 받는 현상을 중심으로, 『이문원노종기』를 다시 읽어 보려고 해요. 이런 관점에서 이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학 생**: \_\_\_\_\_ [A]

**선생님**: 네, 잘 말했습니다.

- ①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백여 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나무를 보살피 주었기 때문입니다.
- ② 글쓴이가 ‘널찍이 드리운 서늘한 그늘’로 인해 ‘홀쩍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 것은,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에게서 인간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③ ‘풀과 나무’가 ‘몸을 보전하는 계책’이 있는 것은,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해 준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④ ‘암소’의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하는 위험을 인간이 ‘톱으로 잘라’서 해결해 주는 것은,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⑤ 글쓴이가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에서 자란 나무보다 번성하게 자랐다고 한 것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동림산업은 사무직 남자 직원들에게까지 제복 착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준비 위원회를 결성해 전체 사원이 새로운 제복을 착용하도록 결정했으나, 그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무직 남자 직원들이 있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와서 아무리 떠들어대 봤자 제복은 벌써 우리 몸에 절반쯤이나 입혀져 있어.”

민도식이 나서서 **협박해진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혔다.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한 건 처음부터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경영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내외에 풍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이제 길은 두 가지뿐야. ㉠ **나머지 절반**을 찾아서 마저 몸에 꿰든가, 아니면 기왕 우리 몸에 입혀진 절반을 아예 벗어 버리든가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저기 좀 보라고. 저 사람 아까 부터 우릴 비웃고 있어. 제복 얘기 앞으로는 그만하기로 하지.”

생산부 공원 복장을 한 사내가 엇비뚤름한 자세로 이쪽을 돌아다보며 ㉡ **아름다운 웃음**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 그를 보더니 장상태가 화를 벌컥 내면서 큰 소리로 미스 윤을 불렀다.

“이봐, 저기 앉은 저 사람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해!”

㉢ **눈이 휘둥그레진** 미스 윤이 종종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쪽에서 자진해서 먼저 일어섰다. 그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장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전히 웃음기를 입에 문 얼굴이 장을 정면으로 상대했다.

“당신 뭐야? 뭔데 어제부터 남의 얘길 엿듣고 비웃지, 비웃길?”

“비웃음으로 보셨다면 용서하십쇼. 엿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릴 정도로 선생님들 말소리가 컸습니다. 말씀 내용이 동림산업에 계신 분들 같아서 저도 모르게 관심이 갔나 봅니다.”

“오오라, 그러고 보니 당신도 동림 가족의 일원이 분명하군. 부서가 어디야?”

“생산부 제1 공장입니다. 거기서 잡역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권입니다.”

“이름이 권이다? 그럼 성까지 아주 짝을 채워 보게.”

“성이 권입니다.”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장은 권 씨를 노리갯감으로 삼아 화풀이할 작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료들에게 은밀히 눈짓을 보냈다. 함께 놀이에 끼어들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도식이 보기엔 첫눈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것은 생산부 공원들이 본사의 사무직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갖는 비굴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적대감도 아닌 그것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임이 분명했다. 두툼한

[A] 입술과 커다란 눈이 얼핏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장상태하고 비교해서 둘이 서로 어금어금할 정도로 작은 체구였다. 실제 나이는 장보다 두세 살쯤 위일 것 같은데 적어도 이삼십 년은 더 세상을 살아 냈을 법한 관록 같은 게 엿보이는 얼굴이었고, 그것이 교양이라는 것하고도 연결되어 잡역부라던 자기소개가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짝을 채우기 싫다 이거지? 좋았어. 그런데 자네가 하는 잡역 일하고 무슨 상관인 있어서 우리 얘기에 이틀 동안이나 관심이 갔지?”

“물론 상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선 작업 중에 팔이 뭉텅 잘려져 나간 사람이 있고 그 팔 값을 찾아 주려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선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려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장상태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았다.

(중략)

체육 대회가 열리는 제1 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도 여전히 망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심스런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 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까짓것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먹을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에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야!”

㉣ **거듭되는 재촉**에 이렇게 큰소리로 대거리를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외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 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 곤색 일색**의 운동장을 넘어다보는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 **숨이 턱 막혀** 읊을 느꼈다.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 사원이 각 부서별로 군대처럼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서서 연단에 선 지휘자의 손끝을 우러러보며 사가(社歌)를 제창하기 직전의 예비 운동으로 목청을 가다듬는 헛기침들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공장 일대를 한바탕 들었다 놓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했다. 노래 부르는 직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검정 곤색의 제복들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사복 차림으로 꿈무늬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세상 전체가 온통 제복투성이인 가운데 저 혼자만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자기 한 사람쯤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 대회 개회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을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붙박여 버린 듯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을 몰랐다.

- 윤홍길, 『날개 또는 수갑』 -

28. [A]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행위를 사실적으로 그려 내어 내적 갈등을 표면화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인물이 겪는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인물의 특징을 관찰하여 알려 주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인물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29. ㉠의 의미와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미 끝난 이야기’라는 말로 보아, 남자 직원들 중에 ㉠을 마저 입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협약해진 분위기’로 보아, ㉠과 관련된 문제로 남자 직원들 사이에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말로 보아, 권 씨도 남자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을 마저 입을지를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총각 사원 하나’에 대한 아내의 반응으로 보아, 아내는 총각 사원이 ㉠ 때문에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소문을 믿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점점 곤색 일색’으로 보아, 체육 대회에 참석한 전체 사원이 ㉠을 마저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는 권 씨가 사무직 직원들의 대화에 관심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반응이다.
- ② ㉢는 장상태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명령하였기 때문에 미스 윤이 드러낸 반응이다.
- ③ ㉣는 아내가 집을 나서지 않고 있는 남편 때문에 걱정하여 보인 반응이다.
- ④ ㉡는 전체 직원들이 같은 옷을 입고 군대처럼 도열한 모습을 본 민도식에게 나타난 반응이다.
- ⑤ ㉣는 직원들이 사복을 입은 민도식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반응이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중도적 주인공’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집단의 논리를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인물이다. ‘중도적 주인공’은 인식 측면에서는 집단의 논리에 숨겨진 문제를 읽어 내는 주체적인 관점을 보인다. 그러나 행동 측면에서는 자신의 인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거나, 집단에 동화되지 못한 채 집단 논리의 수용 여부를 두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다.

- ① 동료에게 ‘준비 위원회’의 ‘회의’에 담긴 ‘경영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발언하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동립산업’이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주체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② 권 씨를 ‘노리갯감’으로 삼자는 장상태의 ‘눈짓’을 읽었지만 이에 선뜻 동참하지 않은 것을 보니, 민도식은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과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군.
- ③ 아내에게 ‘큰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도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동립산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회사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군.
- ④ ‘사복 차림’으로 체육 대회에 가지만 자신을 ‘꿈무늬에 따라 붙으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집단의 논리를 거부하고 싶지만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⑤ ‘제1 공장’ 정문 앞에서 ‘붙박여 버린 듯’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니, 민도식은 ‘동립산업’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풍파에 일렁이던 배 어디로 갔단 말인가  
구름이 험하거늘 처음 나왔는가 어찌하여  
허술한 배 두신 분네는 모두 조심하소서

- 정철의 시조 -

(나)

심의산(深意山) 서너 바퀴 감돌아 휘돌아 들어  
오뉴월 한낮에 살얼음 엉긴 위에 된서리 섞어 치고 자취눈  
내렸거늘 보았는가 입아 입아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입이 짐작하소서

- 정철의 시조 -

(다)

아이야 구럭 망태 찾아라 서쪽 산에 날 늦겠다  
밤 지낸 고사리 벌써 아니 자랐으랴  
이 몸이 이 나물 아니면 조석(朝夕) 어이 지내리 <제1수>

아이야 도롱이 샷갓 차려라 동쪽 시내에 비 내린다  
기나긴 낚싯대에 미늘\* 없는 낚시 매어  
저 고기 놀라지 마라 내 흥 겨워하노라 <제2수>

아이야 죽조반(粥早飯) 다오 남쪽 논밭에 일 많구나  
서투른 따비\*는 누구와 마주 잡을꼬  
두어라 성세궁경(聖世躬耕)\*도 역군은(亦君恩)이시니라 <제3수>

아이야 소 먹여 내어라 북쪽 마을에서 새 술 먹자  
잔뜩 취한 얼굴을 달빛에 실어 오니  
어즈버 회황상인(羲皇上人)\*을 오늘 다시 보는가 <제4수>  
- 조준성, 「호아곡」 -

\* 미늘: 고기가 물면 빠지지 않게 만든 낚시 끝의 안쪽에 있는 작은 갈고리.

\* 따비: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

\* 성세궁경: 태평한 세월에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음.

\* 회황상인: 세상일을 잊고 한가하고 태평하게 숨어 사는 사람을 이르는 말.

3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 ②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와 자연의 유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미래에 대한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⑤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계절의 변화상을 그려 내고 있다.

33.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각 수의 첫 음보를 동일한 시어로 제시하여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제1수>와 <제2수>에서는 생활 도구를 언급하여 화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제1수> 종장과 <제3수> 종장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걱정은 각 수의 종장에서 강화되고 있다.
- ④ <제1수> 종장과 <제3수> 초장에서는 간단한 먹을거리를 언급하여 화자의 소박한 생활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제4수> 종장은 첫 음보의 감탄 표현을 활용하여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철과 조준성이 살았던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에는 정치 참여 과정에서 당파 간의 대립과 투쟁이 극심해지면서 정치적 공격을 받은 문인들이 벼슬에서 파직, 유배되거나 산림에 은거하는 등 정계에서 소외된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잦았다. 이 과정에서 문인들은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과 경계, 처세관, 자연에 몰입하려는 태도 등을 작품에 드러내었다.

- ① ‘풍파’가 험난한 정치 현실이고 ‘일렁이던 배’가 시련을 겪은 관료라면, (가)의 초장은 당쟁에 휘말린 사람이 정치적 소외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겠군.
- ② ‘구름이 험하거늘’이 정치적 위기의 조짐에 해당하고 ‘허술한 배 두신 분네’가 신진 관료라면, (가)의 종장은 화자가 정치 경험이 충분치 않은 이들에게 정치의 험난함을 알려 주는 것이겠군.
- ③ ‘심의산’이 화자의 심회이고 ‘오뉴월’의 ‘자취눈’이 화자의 복잡한 심정을 비유한 표현이라면, (나)의 초장과 종장에서는 당쟁의 상황에서 굳은 마음을 견지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온 놈이 온 말을 하’는 상황이 비방과 모략이 난무하는 현실이고 ‘입’이 임금이라면, (나)의 종장은 온갖 참소를 임금이 잘 판단해 달라는 것이겠군.
- ⑤ ‘미늘 없는 낚시’가 욕심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한다면, (다)의 <제2수> 종장은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화자의 흥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는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쓰임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현상인 품사 통용도 이러한 경우 중 하나이다. 가령 ‘그는 세계적 선수이다.’의 ‘세계적’은 관형사이고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의 ‘세계적’은 명사이므로 ‘세계적’은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이다. 또한 ‘그는 그저께 낮에 왔다.’와 ‘그는 그저께 왔다.’의 ‘그저께’는 각각 명사와 부사이므로 ‘그저께’도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이다. 이처럼 명사와 부사로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에는 ‘약간’도 있다.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는 그 품사에 따라, 결합하는 단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가령 명사 ‘세계적’은 ‘으로’와 ‘이다’ 등과 같은 격 조사와 결합하지만 관형사 ‘세계적’은 격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명사 ‘그저께’는 다양한 격 조사와 결합한다.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는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가령 명사 ‘세계적’은 격 조사와 결합해 문장의 부사어와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데 관형사 ‘세계적’은 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항상 관형어로 쓰인다. 그리고 명사 ‘그저께’는 격 조사와 결합해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그런데 국어에는 품사 통용을 보이지 않는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쓰임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먼저 ㉠ 하나의 명사가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 모두 쓰이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바람이 분다.’의 ‘바람’은 관형어 없이도 문장에 쓰일 수 있는 자립 명사이고, ‘그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회사에 지각했다.’의 ‘바람’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문장에 쓰일 수 있는 의존 명사이다. 다음으로 ㉡ 하나의 동사가 본동사와 보조 동사로 모두 쓰이는 경우가 있다. ‘나는 힘을 내었다.’의 ‘내다’는 보조 동사 없이도 문장의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본동사이고, ‘나는 고난을 견뎌 내었다.’의 ‘내다’는 본동사 없이는 문장에 쓰일 수 없는 보조 동사이다. 이를 통해, ‘바람’과 ‘내다’는 그 쓰임에 따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말의 유무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내 생일은 그저께가 아니라 어제였다.’의 ‘그저께’와 ‘그저께 본 달은 매우 밝았다.’의 ‘그저께’는 품사가 서로 같다.
- ② ‘그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의 ‘세계적’과 ‘그는 그저께 서둘러 여기를 떠났다.’의 ‘그저께’는 품사가 서로 같다.
- ③ ‘첫눈이 그저께 왔다.’의 ‘그저께’와 ‘그는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의 ‘세계적’은 품사는 서로 다르지만 문장 성분은 서로 같다.
- ④ ‘여기는 그저께 낮만큼 더웠다.’의 ‘그저께’와 ‘꽃이 그저께 피었다.’의 ‘그저께’는 품사도 서로 다르고 문장 성분도 서로 다르다.
- ⑤ ‘그는 세계적인 선수이다.’의 ‘세계적인’과 ‘그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의 ‘세계적으로’는 모두, 명사에 조사와 어미가 결합한 문장 성분이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의 밑줄 친 단어는 모두 둘 이상의 쓰임을 보인다.

㉠ 나는 급한 마당에 실수로 결재 서류를 휴지통에 버렸다.

㉡ 나는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자전거 바퀴를 깨끗이 닦았다.

㉢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넓은 마당을 일곱 바퀴나 돌았다.

㉣ 산꼭대기에 구름이 약간 꺾 가지고 경치가 좋아 보였다.

㉤ 나는 모임을 가지고 난 후 아주 급히 집으로 와 버렸다.

- ① ‘마당’은 ㉠에 해당되고 ㉡에서는 자립 명사로 사용되었다.
- ② ‘약간’은 ㉠에 해당되고 ㉡에서는 자립 명사로 사용되었다.
- ③ ‘바퀴’는 ㉠에 해당되고 ㉢에서는 의존 명사로 사용되었다.
- ④ ‘가지고’는 ㉣에 해당되고 ㉤에서는 본동사로 사용되었다.
- ⑤ ‘버렸다’는 ㉣에 해당되고 ㉤에서는 본동사로 사용되었다.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국어에는 ㉠ 유음화, ㉡ ‘ㄹ’의 비음화, ㉢ 구개음화,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ㄴ 첨가 같은 다양한 음운 변동이 있다. 대부분의 표준 발음에는 이러한 음운 변동이 적용돼 있다. 그런데 음운 변동이 잘못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아 비표준 발음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고려하여 [자료]의 ㉠~㉤가 비표준 발음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자.

[자료]

예	표준 발음	비표준 발음
㉠ 인류가	[일류가]	[인류가]
㉡ 순환론	[순환논]	[순환론]
㉢ 코끝이	[코꼬치]	[코꼬티]
㉣ 들녘을	[들너클]	[들너글]
㉤ 봄여름	[봄너름]	[보머름]

- ① ㉠은 ㉠이 적용돼야 하는데 ㉡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 ② ㉡은 ㉡이 적용돼야 하는데 ㉠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 ③ ㉢은 ㉢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④ ㉣은 ㉣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⑤ ㉤은 ㉤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수신 메일함

< > ↻ 🔒

[우리끼리 소곤소곤] 8월 호 뉴스레터

보낸 사람 △△고 학생회

받는 사람 김▽▽

2024년 8월 5일(월) 18:03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매월 첫 번째 월요일마다 발송되는, '우리끼리 소곤소곤'이 도착했습니다.

1. 따끈따끈 소식 - 우리 학교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1) 운동장 야영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 비결

운동장 야영 프로그램의 2학기 신청 기간이 8월 26일(월)~30일(금)입니다. 지난 학기에 선정된 팀들의 신청서 작성 비결을 공개합니다!

+전문 보기

2) 우리 학교 도서관 인기 도서 공개

책 고르기가 막막한 학생들을 위해 우리 학교 도서관 1학기 인기 도서를 공개합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를 공개합니다.

+전문 보기

2. 사람을 만나다 - 학교 구성원과 나눈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1) 노래 대회 우승자가 우리 학교에 있어요!

'제3회 ◇◇ 노래 대회' 우승자가 우리 학교 학생이라는 것 알고 있죠? 대회에서 겪었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전문 보기

2) 정년 퇴임 기념 면담 - 박□□ 선생님의 교직 인생

8월 말 정년 퇴임을 앞둔 박□□ 선생님을 만나, 선생님의 교직 인생에 대해 들어 왔습니다.

+전문 보기

3. 학생회 소식 -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학생회 주관 학습 도우미 프로그램

학생회에서 학습 도우미가 학습 전략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8월 23일(금)에 진행합니다.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전문 보기

☞ 이번 호는 만족했어요. ☞ 이번 호는 불만족했어요.

※ 기사의 내용 오류, 궁금한 점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제보하기'를 클릭해서 의견을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보하기

본 뉴스레터는 학생회 누리집에서 뉴스레터 구독을 신청했기에 발송되었습니다. 이 메일은 발신 전용 메일이므로, 회신할 수 없습니다. 이후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수신 거부'를 클릭해 주세요.

수신 거부

40. (가)에 드러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회의할 내용을 차례대로 제시하여, 대화 참여자에게 회의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 주었다.
- ② ㉡: '승민'의 발화 일부를 재진술하여,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였다.
- ③ ㉢: 영상 링크를 전송하여, '재환'의 의견에 반대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 ④ ㉤: 물음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한빛'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의문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 ⑤ ㉥: 파일을 전송하여, '희경'이 자신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41.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뉴스레터는 학생회 누리집을 통해 수신에 동의한 구독자에게 발송된다.
- ② 뉴스레터는 구독자에게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발송된다.
- ③ 뉴스레터 구독자는 '전문 보기'를 통해 이전 호 뉴스레터를 볼 수 있다.
- ④ 뉴스레터 구독자는 '제보하기'를 통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보낼 수 있다.
- ⑤ 뉴스레터 구독자는 이번 호 뉴스레터에 대한 만족 여부를 표현할 수 있다.

42. (가)의 대화 내용을 반영하여 (나)를 제작했다고 할 때,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따끈따끈 소식'에는 구독자 관심사에 대한 '승민'과 '한빛'의 대화를 반영하여, 운동장 야영 신청서 작성 비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 ② '따끈따끈 소식'에는 구독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정희'와 '윤찬'의 대화를 반영하여, 도서 대출을 많이 한 학급 순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 ③ '사람을 만나다'에는 면담 대상자의 화제성에 대한 '재환'과 '민하'의 대화를 반영하여, 노래 대회 참여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 ④ '사람을 만나다'에는 면담 시기의 시의성에 대한 '범석'과 '수민'의 대화를 반영하여, 정년 퇴임을 앞둔 선생님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 ⑤ '학생회 소식'에는 기사 내용의 유용성에 대한 '혜정'과 '지호'의 대화를 반영하여, 학습 도우미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19 20

가

##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43. ‘준호’의 글에 나타난 정보 구성 및 제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재목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② 그래프 자료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글자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글의 정렬 방식에 변화를 주어 스마트폰 사용 시 시간대별 유의 사항을 부각하고 있다.
- ⑤ 화살 모양의 표지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 현황의 일부에 주목하도록 표시하고 있다.

44. ‘준호’의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준호’가 언급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친하리’는 자신이 평일보다 주말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적은 이유를 드러내었다.
- ② ‘준호’가 언급한 영상 시청 분야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랑’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른 영상을 추가적으로 시청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 ③ ‘준호’가 언급한 누리 소통망 활용 목적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랑’은 누리 소통망으로 자신이 소통하고자 하는 대상과 화제를 드러내었다.
- ④ ‘준호’가 언급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꿈자람’은 자신의 진로를 고려하여 스마트폰 사용 용도를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내었다.
- ⑤ ‘준호’가 언급한 일지 작성의 효용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꿈자람’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일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드러내었다.

4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나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 ② ㉡: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 가운데 영상 시청과 게임이 중심이 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 ③ ㉢: 요리사로서의 꿈을 꾸게 된 때가 자격증 관련 영상을 시청하게 된 때보다 나중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 ④ ㉣: 스마트폰으로 주말에 영상 시청과 게임 중 더 많이 한 일이 무엇인지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 ⑤ ㉤: 누리 소통망을 주변 사람과만 사용해서 누리 소통망 사용 시간이 적은 것이 당연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